

서유럽 전자시장 현황과 전망

1. 경제전망

1998년 상반기 미국, 캐나다 및 EU 대부분의 국가 등 선진 경제권은 건실한 성장세와 낮은 인플레이션을 기록했다. 그러나 최근 몇 달간 세계경제 전망은 악화되었다.

주요한 세계적 경제위기 잠재요인으로는:

- (1) 일본경기 침체와 정치적 마비 상황의 심화
- (2) 홍콩 달러와 중국 위안화의 절하 가능성
- (3) 서유럽과 북미 주식시장의 하락세
- (4) 러시아 및 브라질을 위시한 남미의 경제상황 악화
- (5) 1999년 말부터 2000년까지의 밀레니엄 버그의 잠재적 위협

선진경제권의 GDP 성장률은 1997년 2.9%에서 1998년 2.2%로 1999년은 1.9%로 낮아질 전망이다. 이 보다 더 급격히 낮아진다면 이는 분명한 위협이 될 것이다.

건실한 내수수요에 힘입어 EU의 GDP 성장률은 1998년 2.8%에서 1999년 2.6%, 2000년은 1.9%로 전망된다.

소비자 및 기업확신지수는 저자율, 금융경색의 완화, 실질소득

성장 및 낮아지는 실업률(비록 아직도 높은 수준이지만) 등으로 인해 높아지고 있다. 수출 부문은 건설하나 아직은 아시아 위기에 취약하다.

독일과 프랑스의 GDP는 EU 전체와 맞추어 성장할 것이며, 아일랜드, 스페인, 포르투갈, 핀란드 및 네덜란드는 EU 평균 이상이다.

영국의 경제는 EU에서 가장 약해지리라 전망된다. 영국경제는 1997년의 3.1% 성장에서 1998년 2.2%로 낮아졌다. 주요 요인은 파운드화의 강세 및 소비자 지출 부진으로 인한 수출의 하락이다.

고이자율로 인한 과잉제고의 조정 및 향후 내수수요 저하에 따라 연간 성장률은 부진세가 계속될 전망이다. 1999년의 GDP 성장률은 1.1%, 2000년은 1.8%로 전망된다.

소비자 및 기업지출이 완만하고, 주가가 부진하며, 순수출이 신흥 시장 위기로 인해 침체됨에 따라, 미국의 GDP 성장은 1998년 3.4%에서 1999년 2.0%로 낮아졌다가 2000년 2.1%로 약간 높아질 것으로 예측된다.

주식시장의 붕괴는 소비긴축을 야기시켜 더욱 급격한 하락세를 유도할 수 있다.

내수수요가 매우 취약했기 때문에, 일본의 GDP는 1998년 2사분기에 0.8% 하락하였는데 이는 3분기 연속으로 하락한 것이다. 수출은 아시아 경제위기로 인해 침체되고 있다.

기업확신지수는 악화되었으며 투자계획이 더욱 삭감되고 있다. 팽창적인 재정 및 금융정책에도 불구하고, GDP 성장률은 1998년 -2.5%, 1999년 0.5% 및 2000년 1.5%로 전망된다.

아시아 개발도상국의 성장률은 1998년 1.3%로 급격히 하락하나, 1999년 3.2%, 2000년은 3.8%로 부분적인 회복이 예측된다.

인도네시아, 태국, 한국 및 말레이지아의 1998년 및 1999년 성장률은 줄어들 것으로, 홍콩 및 필리핀은 1998년 하락할 것으로 전망된다. 남미지역은 1998년 2.6%, 1999년 2.0%, 2000년 3.9%의 성장률이 예측된다.

러시아 경기의 악화로 인해, 구소련의 GDP는 1998년 2.4%, 1999년 2.6%로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동유럽의 성장률은 이전에 예상한 것보다 낮아져 1998년 3.1%, 1999년 3.0%, 2000년은 3.6%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2. 전자산업 전망

서유럽의 전자기기 및 부품시장은 1997년 전년의 2,510억 \$ (현재의 달러 기준)에서 2.8% 하락한 2440억 \$ 규모였다. 그러나, 이러한 하락은 미국 달러화에 대한 유럽통화의 감소에 기인하는 것으로 실질적인 성장률은 4.9% 였다.

본고에서의 1996년을 제외한 모든 수치는 1997년의 불변 환율과 금액으로 나타나 있어서 인플레이션 부분을 포함치 않는다. 여기에 나타난 모든 성장률은 실질성장률이다.

또한 생산과 시장 추정치는 공장 판매에 근거하며 소매세금이나 가산액(mark-ups)을 포함치 않는다는 것을 유념할 필요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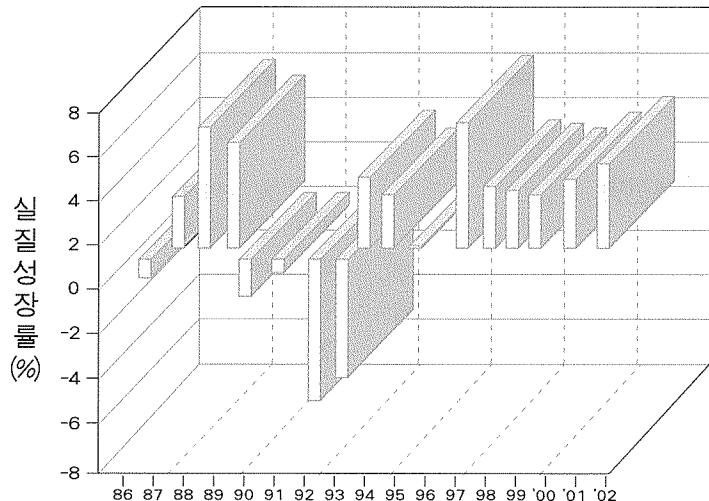
전체 전자시장 성장률은 1998년 2.7%, 1999년 2.5% 및 2000년 2.3%로 전망된다. 2001년 이후에는 성장이 가속되어 2.8%, 2001년에는 3.6%를 기록할 것으로 예측된다.

역사적으로 보면, 전자시장은 1980년 말에 강한 성장세를 보였다가 90년부터 93년까지의 침체기를 겪었다. 이후 94년과 95년 높은 IC 성장률로 인해 전자기기 시장의 저성장을 커버한 반도체시장이 전체 전자시장의 성장에 기여하였다.

극동 지역의 통화절하와 결부되어, 1998년 동안 반도체시장은 메모리 부문의 과잉 캐퍼로 인해 단가하락을 경험했다.

그 결과 반도체시장은 약 8%

서유럽의 실질 시장성장률 (1985-2002)



감소하였으며 이로 인해 전체 전자부품시장도 2% 감소케 되었다.

이러한 것이 발생치 않았다면, 1998년 성장률은 4%를 상회했을 것이다. 1999년 및 2000년 반도체 시장은 회복세가 전망되어 1999년 7%, 2000년 9%의 성장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세계경제의 악화가 전자시장에 영향을 미쳐 기타 전자부문의 성장은 부진할 것으로 전망된다.

1997년 호황을 맞아 8% 증가했던 컴퓨터시장(EDP)은 1999년 2.9%, 2000년 2.3% 성장으로 둔화되리라 예측된다.

가전시장은 2000년 1.4% 성장으로 부진하다가 2002년 디지털 TV의 기여도가 증가함에 따라 2.6%로 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동통신을 포함하는 무선통신 시장은, 이동통신의 성장의 대부

분을 차지하는 서비스 부문을 제외하고, 연간 5%대의 성장을 구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전자기기 및 부품의 생산은 1996년 2,190억 \$, 1997년은 이보다 적은 2,160억 \$을 기록했다. 이는 현재의 달러금액으로 1.4%의 하락을 의미하나 실질성장은 6.4% 증가했다. 이는 1996년 1.0%의 실질성장을 보다 크게 나아진 것으로, 무선통신(이동통신 포함)기기 생산의 20% 성장에 기인하는 것이다.

1998년 생산은 3.4% 증가하리라 예측된다. 반도체 생산은 8% 대 감소, 기타 부문의 생산은 부진하나 무선통신의 생산 성장률은 12%로 늘어날 것이다.

1999년 전체 전자생산 성장률은 3.0%로 전망되는데 반도체 생산의 7% 증가는 나머지 부문의 부진세에 의해 상쇄되리라 예측된다.

현재의 달리기준으로 영국 시장은 1997년 7% 성장하였으나 파운드화의 강세로 인해 실질성장을 은 -0.7% 였다.

수입 칩으로 인해 부품시장은 3.2% 후퇴하였으며 가전시장도 3.7% 감소하였다. 반면, 컴퓨터 시장은 4.0%의 실질성장을 기록하였다. 통신 부문 생산의 23% 대폭증가에 힘입어 생산은 3.0%의 실질성장을 기록하였다.

1998년 영국시장은 서유럽 국가 중 가장 낮은 1.7%의 성장이 전망된다.

이는 통신 부문의 6% 성장전망에도 불구하고 부품시장의 생산이 1% 성장에 머물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1999년 영국시장은 생산이 부진 함에 따라 1.3% 감소가 예측된다. 반도체 시장은 성장이 기대되나 EDP 및 가전시장이 2% 하락 등 기타 부문은 열세가 전망된다.

2000년 영국시장은 서유럽 평균치인 2.4%의 성장을 기록하고, 2001년과 2002년 서유럽 평균치를 능가하며 각각 3.1%, 4.2%의 성장이 예측된다.

독일시장은 5년만에 처음으로 1997년 3.4% 성장을 기록하였다. 이는 다른 부문에서 감소를 기록했지만 EDP 부문에서 12% 이상의 성장 및 부품산업에서 6%의 성장에 기인하는 것이다. 가전시장은 1991년 아래의 하락추세에 이어 6% 감소를 기록하였다.

1998년 독일시장은 2.1%의 성장이 전망되며 1999년은 서유럽에

서 가장 큰 폭의 성장이 전망되어 3.1%의 성장을 기록하리라 기대된다. 2000년에는 1.8% 성장으로 성장폭이 낮아지지만 이후에는 서유럽 평균성장을 유지하리라 예측된다.

1997년 생산부문의 성장률은 무선통신이 14% 성장함에 따라 4.8%를 기록하였으며, 1998년과 1999년 전체 생산은 3%대로 성장하리라 전망된다.

프랑스 시장은 1997년 무선통신의 15% 성장에 힘입어 5.3% 성장을 기록하였다. 1998년과 1999년은 2.8%의 성장이 기대되며, 2000년에는 2.1% 성장으로 낮아졌다가 2001년 다시 속도가 붙어 2002년 3.3% 성장하리라 전망된다.

서유럽 국가 중에서 가장 빠른 성장세를 기록하고 있는 나라는 그리스로 1997년과 2002년 사이 연평균 6.9%의 성장이 기대된다. 이는 유럽전자시장을 1996년 0.63%, 2002년 0.78% 성장시키리라 전망되지만, 이 수치는 유럽 인구의 3%를 차지하는 그리스를 감안할 때 아직은 낮은 수치이다.

1997년부터 1999년까지 3년간의 연평균 생산성장률은 4.3%로, 핀란드, 스웨덴, 아일랜드 및 그리스 등이 높으며 오스트리아, 이태리 및 영국이 낮다.

1996년 서유럽에서 21.7백만 대의 칼라 TV가 생산되었으나, 1997년은 생산기지의 동유럽 이전으로 인해 19.9백만대로 낮아졌다.

오스트리아의 칼라 TV 생산은 1.55백만 대에서 1.06백만대로 낮아졌으며 이태리는 3.2백만 대에서 2.2백만대로 낮아졌다.

1999년 칼라 TV 생산대수는 20.3백만대로 전망되며, 이중 영국에서 26%, 프랑스 25%, 스페인에서 23%가 생산되리라 예상된다. VCR 생산은 1996년 8.2백만 대에서 1999년 7.5%로 낮아지며, 이중 47%가 독일에서 25%가 영국에서 생산되리라 예측된다.

프랑스

구 분	'97	'98	'99
GDP 성장률	2.3	2.8	2.5
소비자물가지수	1.2	1.0	1.8
산업생산	4.9	5.0	3.4

1) 경제동향

1993년과 1994년 동안 어느 정도 회복되었지만, 프랑스의 경제는 1990년대에 부진을 면치 못하여 연평균 1% 이하의 성장에 그쳤다.

이러한 오랜 기간의 저성장을 유럽단일통화(EMU) 기준에 부합하기 위해 요구된 규제정책에 일부 기인하는 것이다.

내수 수요는 정권 교체와 월드컵 특수로 인한 임시고용의 증대로 1997년 개선되었다. 1998년 GDP 성장의 가속화가 예측되나, 1999년은 아시아 위기의 여파로



인한 수출부진으로 다시 하락하리라 전망된다.

2) 산업전망

1994년 산업생산은 꾸준한 회복세를 시현하였으나, 또다시 에너지 수요의 감소로 인해 침체되었다. 낮은 소비자 및 기업확신 지수로 1996년 산업생산은 지속적인 부진을 기록하였다.

이에 대한 정부의 대응은 경제활동을 촉진키 위한 이자율의 하락조치였다.

1997년은 비록 외국으로부터의 오더에 주로 의존한 것이지만, 기업투자의 회복을 나타내는 여러 지표에 힘입어 기업확신지수가 높아졌다. 산업가동률은 기업의 부채지불 능력이 커짐에 따라 1990년대 말의 투자 불과 유사한 수준에 이미 도달해 있다.

기업과 가계의 건실한 재정상태는 지출 및 투자의 회복세를 이끌어 줄 것이다.

3) 전자산업 전망

프랑스 전자산업의 생산은 1997년 7.9% 증가하여 인플레 허용분을 감안하면 7.3% 성장하였다. 1996년 성장률은 1993년 4.7% 하락, 1994년 3.1% 성장, 1995년 8.1%에 이어 5.2%를 기록하였다.

컴퓨터 및 부문품의 생산은 4.1% 증가하였으며, 가전기기의 생산은 8.8% 성장하였다.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부문은 유선통신

과 레이더 부문으로, 수출부문의 27% 성장에 힘입어 무선통신(radio communications)은 26% 증가하였으며 레이더, 항해보조장치 및 기타 군사용 전자기기는 20% 증가하였다. 칼라 TV의 생산은 1996년의 소폭 감소에 이어 3.9백만대로 증가하였다. VCR은 감소세를 지속하고 있다.

프랑스 전자사업의 고용자수는 1997년 약 169,000명이었다. 고용은 1991년 4.7%, 1992년 3.2%, 1993년 8.6%, 1994년 3.9% 하락하였다.

1995년 관련수치를 제공한 프랑스 무역기관들의 구조의 변경으로 인해 정확한 비교를 하기 어려우나, 감소세는 1995년 이후 안정된 듯 하다.

유선통신, 레이더 및 통신 부문이 생산의 42%를 차지하는데, 이는 스웨덴과 핀란드를 제외하고 유럽에서 가장 높은 비율이다.

여기에는 근년 프랑스 및 외국의 국방비 지출감소를 반영하여 판매가 하락하고 있는 군수용 전자가 포함된다.

이러한 하락률은 1991년과 1995년 사이 약 30%에 달했다. 1996년에는 프랑스시장이 감소한 반면 수출이 증가하였으며 이 추세가 1997년에도 계속되었다.

이 군수용 전자시장의 추가적 하락이 예상되며, 프랑스 정부의 1997-2002년 마케팅 프로그램이 효력을 발생할 때쯤 이 시장은 안정세를 유지할 전망이다.

1997년 Thompson은 Alactel과

Dassault를 합병하여 유럽 군수용 전자업체중 상위를 차지하는 회사로 변모했다.

1996년 Matra와 British Aerospace는 미사일 부문의 합병을 발표하여 유럽에서 가장 큰 유도무기 회사가 되었다.

1996년 4월 Packard Bell, Groupe Bull의 지분 17%를 보유한 NEC 및 Bull은 신제품을 개발하고 국제적 위상을 강화하기 위해 Bull이 자사의 Zenith Data Systems 부문을 양도하고 NEC가 283백만US\$을 Packard Bell에 투자하는 협정에 조인했다.

이 새로 통합된 회사는 Bull의 Angers 생산기지에 Packard Bell의 PC 조립시설을 포함한다. 또한 이 회사는 Hewlett-Packard France를 흡수하여 프랑스에서 가장 큰 PC 제조업체가 될 전망이다. 프랑스 정부는 아직 Bull 지분의 36.4%를 보유하고 있다.

1995년 프랑스의 반도체 제조회사들은 약 3.9십억 프랑을 투자하였는데, 이는 전체 유럽반도체 투자의 25%에 지나지 않았다.

1991년부터 1994년까지는 전체 유럽 반도체 투자의 40%를 차지한 바 있었다.

향후 2-3년간 10억 프랑의 투자가 발표되었는데, 주목할 만한 것은 SGS-Thomson의 새로운 공장과 IBM의 64Mbit 메모리 생산설비 건설이다.

또한, Philips, Motorola, Matra 등도 확장계획을 가지고 있다.

4) 전자업계 동향

- 프랑스의 전문 컨넥터 유통업체인 Matelco는 수동부품 유통 전문회사인 Ban-Elec을 합병하였다. 이 두 회사의 합병으로 100백만 프랑을 상회하는 매출이 예상된다.
- Philips Industrial Electronics는 10개의 가동 공장을 런던의 Advent International이 주도 하는 개인투자가 그룹에 매각하였는데, 이 매각공장에는 프랑스의 Thermocouax of Suresnes 도 포함되었다.
- 프랑스의 Carbone Lorraine은 네덜란드의 Philips와 멕시코의 ITT로 부터 Philips Components사의 페라이트영구자석 부문을 매입하기로 합의했다. 프랑스 Evreux와 폴란드 Skierkiewice에 위치한 Philips 생산기지가 이에 포함되었다.
- Ericsson은 자사가 이미 보유하고 있지 않는 Fihem사의 (MET SA의 지주회사) 나머지 50% 지분을 매입하기로 합의했다.
- Siemens Semiconductors는 남부프랑스의 Sophia Antipolis에 새로운 R&D 센터를 개설하였다. 이 센터는 설계방법학과 개발 소프트웨어뿐만 아니라, 이동통신 및 통신부문의 핵심시장을 겨냥한 제품개발과 지적재산권의 발생 등에 중점 연구할 것이다.
- Alcatel of France는 무선통신

및 개별네트워크 전문회사인 미국의 DSC Communications를 매입했다.

- 프랑스의 반도체생산장비 회사인 Ion Beam Services는 자사의 최초 해외공장을 스코틀랜드 Bathgate에 오픈하여 40명의 일자리를 창출할 예정이다.
- 프랑스 정부는 국가소유의 Aerospatiale와 민간소유의 군수 및 출판그룹인 Lagardere의 군수부문을 합병하는 계획을 발표했다.
- France Telecom과 Deutsche Telekom은 각각 서로의 지분 중 2%씩을 교차하여 보유함으로써 이전의 전략적 제휴관계를 확대시켰다.

걸음을 하고 있으며, 이는 1998년 1/4분기의 제조생산의 감소에 반영되고 있다.

반면, 내수수요는 4%대의 성장을 지속하여 서비스부문을 지원하고 있다.

인플레이션을 억제하기 위해 성장률을 추세이하로 낮추려는 목적으로 영국은행의 이자율은 높아졌으나 1998년 3/4분기에 하락하기 시작하였다. 서비스 부문이 성장부진의 징후를 보임에 따라 이자율은 1998년에 2.2%, 1999년에 1.1%로 낮아졌다가, 2000년에 2.0%로 강화될 전망이다.

2) 산업전망

1998년 1/4분기 제조생산은 크게 하락하여 이 부문이 침체국면으로 진입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여 준다.

전년도에 걸친 파운드화의 강세는 국내외 시장에서 제조업의 경쟁력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수출은 성장을 중지하였으며 수입은 증가하여, 생산에 중대한 영향을 준다.

CBI 분기조사에 의하면, 제조업의 기업확신지수는 1992년 10월 이후 가장 낮은 수준으로 하락하였다.

이의 주된 요인은 18년만에 기업확신지수가 최악의 수준인 수출 전망 때문이다.

항공, 전자, 자동차 등 일부 부문에서는 1998년 성장이 예측되나, 섬유 및 의류, 금속제조, 금속

영 국

구 분	'97	'98	'99
GDP 성장률	3.1	2.2	1.1
소비자물가지수	3.1	3.4	2.8
산업생산	1.5	-0.4	-0.1

1) 경제동향

1997년 영국경제는 5년 연속으로 2.25%의 장기적 추세를 상회하는 성장을 기록하여 3.1% 성장을 이루하였다. 그러나, 경제의 각 부문에 대한 성장률에는 큰 차이가 있었다.

수출성장률은 파운드화 강세의 결과로 1997년 중반부터 제자리



가공, 기계 및 전기부문 등 나머지는 큰 부진이 예측된다.

높은 환율 기간의 연장과 공장 및 기계투자의 급하향 추세는 전체 제조생산의 하락을 야기시킬 전망이다.

1997년과 1998년 1/4분기 제조업 투자는 15% 증가하였는데, 이는 1년 전보다 7% 높아진 것이다.

제조부문의 수익성이 평균적으로 1980년대보다 높아졌지만, 투자의 주기적 회복세는 10년전보다 약하다. 이의 주된 이유는, 환율이 “비경쟁적으로” 높아지기 전에도, 생산능력의 제약이 크게 문제화되지 않았다는 사실 때문이다.

수출에 대한 확신의 붕괴와 가동률 저하의 여파로 투자의향이 부정적으로 변했다. 그러나, 제조 투자의 감소세는 1999년까지는 완전히 명백해지지는 않을 전망이다.

3) 전자산업 전망

1997년 영국의 전자산업은 7.0% 성장을 기록하였는데, 이는 인플레를 배제한 실질적인 측면에서 4.3% 성장한 것이다.

이것은 1992년이래 가장 낮은 기록인 1996년의 3.8% 성장에 비해 상당히 개선된 것이다. 1992년 이래로 생산은 56%, 즉 실질적인 측면에서 약 40%의 성장을 기록한 것이다.

영국 전자산업은 1997년 생산의 75%를 차지한 일부 전자기기의 생산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 가장

큰 개별범주는 컴퓨터 및 유무선통신 부문이다.

영국의 컴퓨터 하드웨어 산업은 68,000명을 고용하며, 1994년 38%, 1995년 14%의 성장을 향유하였다. 1996년과 1997년의 성장률은 각각 겨우 5%, 4.5%에 그쳤다.

이 부문이 전체 전자산업의 35%를 차지하기 때문에 큰 영향을 미친다.

PC 시장의 치열한 가격경쟁력과 결부된 IC 가격의 하락은 PC 판매대수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낮은 금액성장의 주 요인이다. 수출은 생산에 크게 좌우되는데 이는 영국은 유럽시장의 주 생산기지이기 때문이다.

반면, 영국내의 대규모의 유통이 촉진되고 제조설비를 가진 업체들이 컴퓨터 반조립품을 수입하여 완제품으로 수출하기 때문에 수입은 비교적 증가하고 있다.

생산은 국제적인 기반으로 분담되고 있어, 특정 제품의 제조는 개별 공장에서 담당하고 마케팅활동은 제품의 전체분야를 판매하기 위해 각국에서 행해지고 있다.

컴퓨터기기의 내수시장은 1994년 23%가 넘게 성장하였으나, 1995년과 1996년 5%대 성장으로 둔화되었다가 1997년 7%로 약간 개선되었다.

개인용 및 기업용 PC 부문에서 가격인하 압력이 유지되어 금액성장을 제한할 전망이다.

주요 고객인 BT의 유선 통신네트워크에 대한 저투자에도 불구하고,

이 산업은 1994년과 1995년 수출 증가로 인해 강한 성장세를 기록하였다.

1996년 수입은 급증하였고 재수출에도 불구하고 생산은 4% 하락하였다.

업체들의 기술혁신에 대한 투자와 유럽에서의 전화서비스에 대한 규제완화가 새로운 교환기에 대한 투자를 지속적으로 촉진하고 있으며, 기타 자본재 수요도 강세여서 1997년 수출성장세는 회복되어 25%를 상회하는 생산성장을 기록하였다.

그러나, 극동지역 시장은 수출에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나 파운드화 강세가 영국 제조업체의 경쟁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 더욱 어려워질 전망이다. 무선통신은 강한 성장세를 지속하였다.

영국의 통신기기 산업을 지배했던 GEC, Plessey, STC 등 토착기업들은 지금 더욱 큰 국제적 통신그룹의 부분으로 바뀌었다. Northern Telecom에 인수된 테이어, STC의 위치도 Northern Telecom Europe의 사업부문 중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게 되었다.

반면, GPT는 영국과 독일이 통제하는 독립 Joint-Venture의 위치를 유지하고 있으나, 기술적 장점과 더욱 큰 규모인 Siemens가 세계적 전략을 강화하기 위해 결국에는 통제권을 가질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다.

몇년 동안 군사용 레이더, 항해 보조장치 등의 매출이 감소하였다.

소량의 오더 수주와 국방비 지출의 감소세로 인해, 이 산업은 구조조정을 하고 있어 수천 개의 일자리가 없어지고 있다. 정부의 중기 공공지출은 국방예산에서 실질적인 증가를 하지 않지만, 전자매출은 관련기기 조달의 증가로 인해 혜택을 받을 것이다.

1992년 생산의 대폭 하락에 이어 칼라 TV와 VCR의 생산은 꾸준히 회복되어, 칼라 TV는 1994년 5.1백만대, 1995년과 1996년 5.7백만대로 증가했다가 1997년 5.2백만대로 하락하였다. 텔레비전의 80%가 수출된다. 대부분의 VCR도 수입되었다가 재수출된다.

영국의 TV/VCR 제조산업은 이제 외국기업 특히 일본기업이 지배하고 있다.

일본기업들은 South Wales에 생산기지를 두고 영국시장 뿐만 아니라 유럽대륙에 공급한다. 영국 TV/VCR 시장의 주요 주자는 세계시장을 지배하는 일본, 한국 및 대만의 큰 가전기업들이다.

CPT는 Philips가 Durham에서 제조하는데 1993년과 1997년 사이 생산이 60% 증가하였다.

오디오기기 시장은 이 산업의 주요 기업들을 포함하여 20개 기업들로 매우 경쟁이 치열한데, 가장 큰 제품분야인 midi 및 mini systems music centers를 공급하고 있다.

이 산업의 선두기업들은 극동국가 기업이나, 영국의 생산도 증가하였다. 영국의 전문회사들과 브랜드 인지도가 높은 중소 기업들

도 스피커, 앰프, 턴테이블 등을 생산하고 있다.

IC 생산과 시장매출은 1995년 봄을 이루어 35%나 증가하였다. 제품 부족현상이 1995년 대부분 동안 발생하였으며 이러한 성장은 주로 가격인상에 기인한다.

1995년말경 반도체산업이 생산 능력을 확충키 위해 기울인 노력으로 가격이 하락하였다.

이 추세는 1996년까지 지속되어 가격이 더욱 하락되고 반도체시장이 실제로 감소하는 결과를 야기했는데 이는 수년간 경험치 못한 일이었다.

1997년에는 20% 성장하여 회복세였으나 1998년에는 대폭 하락세가 전망된다.

4) 업계동향

- 영국의 전자그룹인 Bowthorpe는 Penny & Giles 계측기기 사업부문을 벤처캐피탈 그룹인 Gresham Trust에 4.75백만 파운드에 매각했다.
- Electrolux는 자사의 냉장고와 진공청소기 공장을 다른 국가로 이전하는 계획을 발표했다. 이는 Durham의 Spennymoor에 위치한 공장에서 650개의 일자리 상실을, Luton 공장의 폐쇄로 650개의 일자리를 추가로 상실하는 것이다.
- Fairchild Semiconductor는 자사의 유럽 본사를 영국의 Swindon에 위치시키는 계획을 발표했다.
- 공해 모니터 제조업체인 Horiba는 Northampton에 위치한 영국 공장의 규모를 3배로 확충할 예정이다.
- Lucent Technologies는 영국의 Swindon에 있는 자사의 GSM 휴대폰 생산 및 연구기지를 확충하여 250개의 엔지니어링 관련 일자리를 창출할 예정이다.
- Matsushita Communication Industrial UK는 Berkshire의 Thatcham에 있는 GSM 휴대폰 설계센터에 20백만 파운드를 투자할 계획이다. 이 센터는 GSM 휴대폰과 제3세대 휴대폰의 개발에 집중할 것이다.
- British telecommunications Plc (BT)는 미국의 MCI Communications과의 통합에 실패하였다.
- 영국의 PCB 제조업체인 BWMP는 Cirqual에 36백만 파운드에 매각되었다.
- Japan Electronic Materials (JEM)는 스코틀랜드 Bathgate에 33.5 백만파운드 제조공장을 건설하여 반도체제조용 test probe card를 생산할 예정이다.
- 영국의 설계자동화 회사인 Cadence Design Systems는 스코틀랜드에 첨단 설계기지를 건설하여 7년간 1,900개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계획을 확인하였다.
- Tamura Hinchley는 스코틀랜드 Glasgow의 Cumbernauld에



있는 지시의 트랜스포머 공장을 폐쇄하여 100개의 잉여 일자리를 만들었다.

- IBM은 스코틀랜드 Greenock에 위치한 자사의 컴퓨터 조립 공장을 확충하여 200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예정이다.
- ViaSystems는 Tyneside에 자사의 PCB공장 건립을 완료하였다. 이 공장은 가동시 1000명이 넘게 고용할 예정이며 이는 미국기업의 230백만 파운드 투자의 결과이다.
- Grundig는 현재 250명을 고용하고 있는 자사의 Wales 위성 수신기 공장에 4백만 파운드를 투자하여 215개의 일자리를 추가로 창출할 예정이다.
- 대만의 전자회사인 Lite-on은 스코틀랜드 Strathclyde의 Mossend에 위치한 자사의 공장에서 250명의 인원을 감축할 예정이다.
- 영국의 컴퓨터 서비스 공급회사인 ICL은 Microsoft와 전략적 제휴를 맺었다. 이 두 회사는 Microsoft의 소프트웨어로 운용되며 SI 솔루션 제공에 ICL의 전문성을 활용할 차세대 소비자 중심 IT 시스템을 개발할 예정이다.
- 대만의 전자회사중 한 회사는 15백만 파운드를 투자하여 새로운 전자 엔클로저 생산공장을 건설할 계획이다. 스코틀랜드 Renfrewshire의 이 공장은 Foxteq으로 알려지며, Hon Hai Precision Industry의 자회사가 될 것이다. 이 공장은 처음 300명을 고용할 예정이나 점차 560명까지 늘어날 것이다. PC 엔클로저가 이 공장에서 제조될 것이다.
- 두개의 영국 마이크로 디스플레이 연구센터가 통합되어 새로운 벤처기업인 MicroPix Technologies가 탄생할 예정이다. 영국 Edinburgh의 Admit Design Systems의 디스플레이 사업부문과 Scipher가 소유하고 있는 영국 Hayes의 연구센터 CRL의 한 사업단위가 통합되는 것으로, ferroelectric silicon backplane LCD를 생산할 예정이다.
- 미국의 Lucent Technologies는 124백만 파운드로 Welwyn garden City에 있는 통신기기 회사인 SDX Business 시스템을 인수하였다.
- ITW Switch는 알려지지 않은 가격으로 UK Chemring 그룹의 McMurdo 컨넥터사업을 인수하였다. McMurdo는 영국 Portsmouth에 있는 ITW 공장에 재배치될 예정이다.
- Packard Bell NEC는 스코틀랜드 Livingston의 제조 및 유통센터에 주문을 할 PC 공장에 26백만 파운드를 투자할 예정이다.
- 프랑스의 반도체생산기기 회사인 Ion Beam Services는 스코틀랜드 Bathgate에 최초로 해외공장을 오픈하여 40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예정이다.
- 영국의 contract 회사인 ACW Technology는 Wales에 있는 Fextronics International의 제조공장을 2.5백만 파운드에 매입했다.
- DuPont Photomasks는 0.18 μ m 반도체가공용 마스크를 제조할 공장을 스코틀랜드 Lanarkshire에 오픈했다.
- Fujitsu는 영국 Maidenhead에 gallium arsenide monolithic microwave IC 설계센터를 오픈하였다.
- Cable & Wireless와 Telecom Italia간의 연합(alliance)은 일련의 합의가 깨어졌으나, 이 두 회사는 투자문제에도 불구하고 연합 관계를 지속할 것이다.
- 엔클로저 제조사인 Reltek UK는 영국 Lancashire의 St Helens에 위치한 자사의 공장을 폐쇄하여 200개의 일자리를 없앨 예정이다.
- Toshiba는 Bristol에 새로운 통신기술 연구센터를 건립하였다. 이 연구소는 차세대 디지털셀룰 라운 포맷과 첨단 무선접속기술 등의 첨단기술을 연구를 담당할 것이다.
- 반도체시장의 급격한 하락에도 불구하고 Philips는 영국 Stockport에 대규모 공장을 오픈하였다. 이 새로운 공장은 VCR, 텔레비전용의 개별 반도체소자를 생산할 예정이다.

아일랜드

구 분	'97	'98	'99
GDP 성장률	9.8	8.3	6.7
소비자물가지수	1.4	2.7	3.2
산업생산	15.3	9.0	8.0

1) 경제동향

아일랜드 경제는 서유럽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해 왔으며 성장률은 10년간 EU와 OECD 평균을 훨씬 상회해 왔다.

GDP 성장률은 1995년 11.1%에서 1996년 7.4%로 둔화되었다. 이러한 둔화는 주로 내수수요가 1995년 6.4% 증가에서 1996년 8.4% 증가로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수출물량 증가율의 하락에 주로 기인하는 것이다.

1997년 GDP 성장률은 9.8%를 기록하였다. 민간소비와 고정투자는 기록을 유지하였으며 수출물량 성장이 수입물량 성장을 또다시 초과하였다.

경제가 유럽단일통화(EMU)의 마지막 단계에 안착함에 따라, 추가적으로 지금까지의 추세 이상의 성장이 기대된다. 1998년에는 약간 낮아진 8.3%, 1999년 6.7%의 성장률이 전망된다.

2) 산업전망

1996년 산업은 전체 경제활동에서 41% 이상의 끊을 차지하였다.

이는 주로 1992년과 1996년 사이 생산이 거의 55%가 증가한 제조부문의 호황에 기인하는 것이다.

특히 고기술의 컴퓨터기기 및 의약제품의 수출생산은 1980년 말 이래의 해외직접투자의 높은 수준 덕분에 급속히 성장하였다.

제조부문은 1994년과 비교하여 1995년 20%의 성장을 기록하였다. 고기술 부문이 강세를 보임에 따라 생산은 1996년 성장을 지속하였다.

1996년 산업생산 성장률은 7.9% 1997년 15.3%를 기록했으며 1998년 더욱 강한 성장세가 기대된다.

3) 전자산업 전망

아일랜드 전자산업은 1997년 22%의 높은 성장률을 기록했는데, 인플레를 감안하면 실질성장률은 20%이다.

1996년은 전년의 35% 성장률에 비교하여 비교적 낮은 10% 성장에 머물렀다.

1995년 전자산업의 주동력은 컴퓨터산업으로 본격적인 PC 마더보드 제조의 구축 덕분에 40%가 넘는 성장을 기록하였다.

1997년도 이와 비슷하여 Seagate의 디스크드라이브 공장의 건립 덕분에 24%의 성장을 기록하였다.

부품의 생산도 1994년과 1997년 사이 평균 23%의 높은 성장을 기록하였는데 능동부품은 38%나 성장하였다.

1997년 통신기기 생산은 80% 증가하였으나 무선통신은 22% 감소하였다.

가장 큰 부문은 컴퓨터산업으로 1997년 전체 전자생산의 70%를 차지하여 아일랜드에서 가동중인 컴퓨터회사들의 높은 비중을 나타내 준다. 대표적인 회사로는 DEC, Apple, Amdahl, Prime Computer, Seagate, Zenith, Concurrent 등이다.

아일랜드의 기타 주요 생산분야는 부품으로 전체 생산의 15% 미만을 차지한다. 그러나, 아일랜드 내의 최종수요자의 증가로 인해 아일랜드 시장을 공략코자 하는 부품제조업체에 많은 기회가 주어지고 있다.

아일랜드에서 부품을 생산하는 주요 외국기업으로는 General Electric, Analog Devices, AT&T, 미국의 Western Digital과 Bourns, 일본의 NEC와 Fujitsu, 독일의 Leonische Drahtwerke와 Melchert, 스웨덴의 Ericsson 등이다.

비록 비교적 소규모지만, 아일랜드의 제어계측 부문은 Westinghouse, Computer Products, Pulse Engineering, Compugraphic, Kollmorgen, EG&G, Technicon 등의 주요 업체에서 다양한 제품을 생산한다.

지난 15년간 동안 아일랜드의 전자업체수는 13배 늘어났으며 수출은 아일랜드의 전체 산업수출의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게 되었다. 북미, 유럽 및 극동지역의 전자회



사들이 아일랜드에서 성공적으로 가동하고 있어, IC에서 컴퓨터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제품을 생산하고 있다.

이러한 발전의 결과로 아일랜드는 전자산업의 사회기반시설을 크게 확충하였으며, 하청 및 부품공급 산업은 외국기업 유치와 아일랜드 기업의 성장을 통해 합병되었다.

지난 10년간 아일랜드 전자산업의 주요 추진력은 아일랜드내의 외국 전자업체들이었다.

전자산업의 약 97%가 외국기업에 의해 주도되고 있다. 아일랜드 개발청(IDA)의 Eire 공장에의 외국기업유치의 성공으로 인해 현지 소유의 많은 중소하청업체의 발전을 가져오게 되었다.

IDA는 극동지역 기업의 유치노력을 가중하고 있으며, 일본, 홍콩, 호주 등지의 기존 사무실을 확대하여 대만과 한국에 새로운 사무실을 오픈하였다.

근년의 아일랜드 통신산업의 투자촉진 프로그램은 이 부문의 발전에 자극제가 되었다.

AT&T, Northern Telecom 같은 메이저 기업들이 아일랜드에서 생산하는 제품은 PABX systems, 디지털 교환기시스템, 모뎀, 멀티플렉서 등이다.

또 하나의 비교적 작은 생산부문인 가전부문의 주요 기업은 독일의 Braun, Krups 등이다.

한국의 위성수신기 업체인 대륭정밀이 18백만 파운드를 투자하여 Craigavon 지역에 생산공장을 건

립하여 1998년까지 500개의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였다.

아일랜드는 외국투자 유치의 중요성을 지속적으로 강조하고 있으며 또한 국내외 업체들을 위해 현재의 산업기반을 더욱 발전시키고 확대하는 새로운 프로그램이 도입되었다.

4) 업계동향

- Cypress Semiconductor는 Cork의 Mahon에 새로운 반도체설계센터 건립을 발표하였다. Cypress는 이 센터 유럽시장의 고객집 제품의 개발에 활용할 예정이다.
- Dell Computers는 아일랜드에 250백만 파운드를 투자하여 3,000개의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여, Limerick 제조공장에 2,400명을 Wicklow의 Bray의 판매센터에 600명을 고용할 예정이다. 또한 Dell은 Limerick의 AST 공장과 종업원들을 인수할 예정이다.
- Madge Networks는 더블린에 위치한 자사의 공장을 콘트랙트 전자제조업체인 Celestica에 매각했다.
- 미국의 ACT manufacturing Inc는 6백만 파운드를 투자하여 더블린의 서부공단(City West Business Park)에 유럽콘트랙트제조서비스 공장을 건립할 예정이다. 이 계획은 4,200 평방미터의 공장에 기초하는 것으로 350명을 고용할 것이다.
- ACT의 더블린에 있는 현존 회사인 Signmax Ltd는 새 공장에 편입될 것이다.
- Motorola는 Cork의 Mahan에 반도체설계 센터를 오픈하는 계획을 발표했다.
- AMp의 무선기술 사업부문인 M/A-Com Eurotec는 Loughmahon Technology Park에 10백만 US\$의 설계센터를 오픈했다. 이 센터는 M/Z-Com의 RF/Microwave IC 유럽설계센터로서 처음에 150명을 고용하고 향후 3-5년 간 200명을 추가로 고용할 예정이다.
- 미국의 전자회사인 The Shiva Corporation은 스코틀랜드 Edinburgh 공장을 폐쇄하여 아일랜드로 이전할 예정이다.
- Intel은 더블린 근처의 Leixlip에 자사의 제2 공장(Fab 14로 알려짐)을 공식 오픈하였다.
- 미국의 콘트랙트 전자제조회사 Solelectron은 NCR의 Computer Systems와 Retail Solutions 그룹의 제조 자산을 취득하였다. 여기에는 NCR의 더블린 공장도 포함되어 있는데, 이 공장은 300명을 고용할 예정이다.
- Xerox는 180백만 아일랜드 파운드를 투자하여 아일랜드에 제조 및 판매 기지를 건립하여 2,200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예정이다. 유럽 서비스 및 고객지원센터가 더블린에 세워져 700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것이다.

독 일

구 분	'97	'98	'99
GDP 성장률	2.3	2.7	2.4
소비자물가지수	1.8	1.2	1.7
산업생산	3.0	3.9	3.4

1) 경제동향

수출에 의해 주도된 1997년의 GDP 성장의 호조세는 내수수요의 부진에도 불구하고 1998년까지 지속되고 있다.

이러한 호조세는 지속되어 20세기 말까지 단기간동안 3%대의 성장이 예측된다.

금융 및 재정정책은 1998년 동안 덜 엄격해졌지만은 국내경제활동의 촉진을 유발한다. 1997년 동안 정부의 규제조치는 GDP의 약 1%를 유출시키는 결과를 가져왔으나 1998년 OECD는 예산합병이 겨우 GDP의 0.2%를 차지할 것으로 추정한다.

2) 산업전망

독일의 기업들은 점차 독일 밖의 값싼 투자지역을 찾게 되었고, 반면 외국기업을 독일로 유치하는 것은 어려워졌다.

1996년 독일의 순외국직접투자 유치는 부진하였으며 1997년까지 이러한 추세가 지속되었다.

1997년 외국의 수요급증으로 제조생산은 5%대의 성장을 기록하였다.

였으며, 가동률은 장기간의 평균치를 상회했다. 그러나 1997년 말 기업확신지수의 증가세는 아시아 위기로 인해 주춤해졌다.

3) 전자산업 전망

1997년 독일 전자산업의 생산은 5.7% 증가하였는데, 이는 6년간의 최고 기록으로 인플레를 배제한 실질성장률은 4.0%였다.

1990년대초 독일의 전자산업은 통일붐 소멸의 효과, 경기침체, 동독산업 재건의 실패 등으로 인해 부진을 경험했다.

1992년 9% 하락에 이어 1993년 생산은 추가로 7.7% 하락하였다. 1994년 비록 실질성장률이 1.2%에 지나지 않았지만 3.5%의 성장으로 약간의 호조세를 시현하였다. 1995년 성장률은 다시 후퇴하여 대부분의 부문에서 2.9%에 그쳤으며 이의 실질성장률은 0.6%였다.

1996년 전체 전자산업의 성장률은 3.9%를 약간 상회했다.

1997년 가장 호조를 보인 부문은 통신 및 레이더 부문으로, 지난 4년간 생산이 2배로 늘어난 무선통신의 성장 덕분에 14% 성장하였다.

EDP 기기의 생산도 호조를 보여 약 10%대의 성장을 기록했다. 그러나 1990년이래 40%나 감소한 가전부문의 생산은 부진하였는데, 칼라 TV 생산은 3.6백만 대에서 1997년 1.9백만대로 감소하였다.

시장도 1994년부터 1996년까지 최소한의 성장을 기록하여 인플레를 감안한 실질성장률은 매년 하락세였다. 그러나 1997년 컴퓨터 기기 시장의 14% 이상의 증가에 힘입어 4.4%의 건실한 성장을 기록하였다.

아직 침체된 부문은 가전시장으로 5% 더 감소하였으나 1998년 성장을 재개할 것으로 예상된다.

독일은 아직도 유럽에서 가장 큰 전자생산국이며 생산 제품이 전자 전반에 걸쳐 다양하다. 1996년 전자산업종사자는 29만명이었으며 전자업체의 수는 1,500개를 상회하였다.

대부분의 전자산업은 국내생산에 집중적으로 기여하며, 특정 부문은 세계시장에서 상당한 점유율을 기록하고 있다.

제어계측 부문은 가장 큰 부문으로 독일 전자생산의 21%를 차지하고, 컴퓨터 기기가 17%, 통신이 15%, 부품이 23%를 차지한다.

독일은 세계 제 2위의 통신기기 수출국이나, 도이치 마르크의 강세로 인해 무역수지는 건실한 흑자에서 점차 악화되고 있다.

4) 업계동향

- Lucent Technologies는 자사의 휴대폰 사업부문의 확장의 일환으로 독일에 150 개의 추가 일자리를 창출할 예정이다.
- Philips Industrial Electronics는 10개의 가동 공장을 런던의

Advent International이 주도하는 개인투자가 그룹에 매각하였는데, 이 매각공장에는 독일 함부르크의 Philips Electronic Centre 도 포함되었다.

- 독일의 Siemens는 미국의 BREED Technologies와 자동차 시장용의 전자 수동제약시스템을 공동개발하고 마케팅 하는 협정을 조인했다. 각 회사는 새로운 지주회사의 지분을 각각 50%씩 보유하며 독일의 Regensburg에 위치하여 독일과 미국을 상대로 활동할 예정이다.

- Siemens와 Motorola는 Dresden에 있는 300mm 웨이퍼 반도체 제조라인을 공동 건립할 예정이다. 이 벤처기업은 독일정부로부터 재정 지원을 받을 예정이다.

- Mannesmann VDO는 네덜란드의 전자회사로부터 Philips Car System을 매입하였다.

- Philips Analytical은 독일의 테스트기기 제조사인 Plasmos를 인수하고 있다. Plasmos는 아태지역, 유럽, 미국 등에 판매 조직을 가동하고 있으며 자사의 제품은 이제 Philips 브랜드로 판매될 것이다.

- 독일의 메모리 업그레이드 제조사인 MSC Vertriebs는 110개 이상의 일자리를 창출할 예정이다. 이 독일기업은 Livingston의 첨단 공장에 6백만 파운드를 투자하여 메모리모듈의 설계와 제조를 수행할 예정이다.

- Robert Bosch는 자사의 차체와 정보 전자활동을 결합하여 800백만 마르크 이상을 판매할 새로운 사업부문을 만들 예정이다. 이 사업부문은 스투트가르트 근처의 Schwieberdingen에 근거를 두고 독일 내 4개 지역에서 1,800명을 고용할 예정이다.

- 독일의 전문 PCB보드 조립, 인더티, 코일제품 제조회사인 Vogt Elektronik는 Fuba Printed Circuits의 지분 95%를 취득하였다.

- 독일의 가장 큰 주인 Bavaria주는 2억 마르크의 기술이니셔티브를 계획하고 있다.

- Multilayer Technology Inc (Multek)은 독일 Boeblingen에 있는 Hewlett-Packard의 Printed Circuit Organization (PRCO)를 매입할 예정이다.

- Nokia는 Matra Nortel Communications의 GSM 단말기 R&D 부문을 인수했다. 남부 독일 Ulm에 위치한 이 부문은 Nokia의 스마트트래픽 제품의 개발능력을 향상시킬 것이다.

- Continental AG는 현금 19.3억 US\$로 ITT Industries의 자동차 브레이크 및 샤시 사업부문을 인수할 예정이다. 이 사업부문은 프랑크푸르트에 본사가 있으며 1997년 22억 US\$의 매출을 기록했으며 11,000명을 고용하였다. Continental은 주로 유럽과 북미에 위치한 16개의 생산기지,

6개의 R&D 센터 및 4개의 조인트벤쳐에 대한 지분을 취득할 예정이다.

- France Telecom과 Deutsche Telekom은 각각 서로의 지분 중 2%씩을 교차하여 보유함으로써 이전의 전략적 제휴관계를 확대시켰다.

이탈리아

구 분	'97	'98	'99
GDP 성장률	1.5	2.1	2.4
소비자물가지수	1.7	1.8	1.9
산업생산	2.5	2.5	2.3

I) 경제동향

1999년으로 예정된 유럽단일통화에의 참여에 따른 경직된 재정 운용으로 경제성장은 후퇴하였다.

1997년 GDP 성장률은 전년의 0.7%에서 약간 회복되어 1.5%대를 기록하였고, 산업생산은 전년의 2.9% 감소에서 2.5% 성장으로 바뀌었다. 1997년 성장률은 7년 연속 EU 평균치보다 낮은 것이다.

이탈리아는 1999년초 단일통화에 참여할 계획이어서 리라화는 없어지게 되며 이에따른 이자율도 2002년초 사라지게 된다.

단일통화 참여가 지체될 경우, 시장의 압력에 따라 리라화 절하와 인플레 상승의 우려가 있다.

이탈리아가 1999년 단일통화에

참여한다고 가정할 때 경제성장률은 1999년과 2000년에 개선될 전망이다.

정부의 적자를 감소키 위한 재정조치는 1995년과 1997년보다 완화된 것으로 이자율은 최근 몇 년보다 낮아질 것이다.

2) 산업전망

기업확신지수는 1996년 중반부터 개선되는 추세를 보여왔으나, 1995년의 최고점에는 도달하지 못했다.

노동비용의 이자율은 12.3%의 실업률로 인해 저수준에 달했으며 실질이자율은 이보다 더 낮다.

1996년과 1997년 겨우 1%대를 기록한 고정투자 성장은 1998년 최소 5%대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3) 전자산업 전망

이탈리아의 전자기기 및 부품 생산은 1997년 전년의 2.5% 감소에 이어 2.0% 성장을 기록하였다. 그러나 1997년 생산의 인플레를 배제한 실질성장률은 전년의 7.6%에 이어 0.6% 감소한 것이다.

이전 2개년간 실질성장이 겨우 6%를 기록한 것에도 불구하고 1995년에는 9.4%, 1994년에는 5.5%의 성장을 기록하였다.

1997년 상당한 실질성장을 기록한 부문으로는 부품, 통신 및 무선통신으로 각각 4.6%, 4.2%,

7.4% 성장하였다.

이탈리아는 독일, 프랑스, 영국에 이어 유럽 4위의 전자생산국이다. 생산은 컴퓨터 및 통신부문이 주도하고 있으며, 1997년 전체 전자산업 생산액의 28%와 18%를 각각 차지하였다.

기타 중요한 부문으로는 테스트 측정기기(15%), 무선통신, 레이더 및 항해보조장치(10%) 및 부품(20%) 등이다. 가전제품중 중요제품인 칼라TV의 생산은 1996년 3.2백만 대에서 감소하여 1997년 2.5백만 대를 기록하였다.

이탈리아전자협회에 기록된 전자산업의 고용은 1997년 69,97명으로 1996년 수치에서 2%, 1994년 수치에서 14% 감소한 것이다.

이탈리아 전자산업의 주동력인 컴퓨터 및 사무기기 제조부문은 이탈리아 소유의 Olivetti와 IRISTET 소유 그룹들이 지배하고 있다.

무역환경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컴퓨터기기의 생산은 1991년까지 성장을, 1992년은 3% 감소를, 1993년 리라화 기준으로 14% 성장을, 1994년 3% 및 1995년 11% 성장을 기록하였다. 그러나 1996년과 1997년 생산은 각각 12%, 1% 하락하였다.

내수소비에 크게 의존하며 정부가 통제하고 있는 통신부문은 Italtel, Selenia, Telettra 같은 몇몇 규모 있는 이탈리아업체를 중심으로 집중되어 있으며, 외국 다국적기업(CGE, GTE, Philips)들에 의해 발전되고 있다.

통신산업은 정부의 10개년 통신계획하의 지출증가와 기술적 조언 등으로 인해 성장하였으나, 1993년 13%의 급격한 하락세를 시현했으며, 1994년은 미미한 성장세를, 1995년은 7% 성장으로 회복세를, 1996년은 다시 1%의 미미한 성장세를 시현하였다. 1997년의 성장률은 7%였다.

이탈리아의 AV기기 생산은 칼라 TV가 지배하고 있는데, 다른 제품의 시장은 수입품이 대체하고 있다. 가전제품 생산의 성장은 생산투자의 축소 등으로 인해 둔화되고 있다.

칼라 TV 시장은 1992년과 1993년 급격히 감소하였으나, 1996년 수출증가로 인해 1997년 까지 생산이 유지되었으며, 1997년은 Monza에 있는 Philips 공장의 폐쇄로 수입품이 증가하고 수출도 급격히 감소했다.

4) 업계동향

- Marconi SpA의 통신부문은 CPT와 통합되어 Marconi Communications를 설립한다.
- Cable & Wireless와 Telecom Italia간의 연합(alliance)에 있어 일련의 합의가 깨어졌다. Telecom Italias는 Cable & Wireless Indies의 지분 20%와 Cable & Wireless의 북미 사업부문의 지분 5%를 인수하는 합의를 체결했으며, Cable & Wireless는 이전에 합의한 바대로, Telecom Italia에 프랑스의



이동사업자 Bougues Telecom의 20% 지분을 매각하는 것이 불가능해졌다. 이 두 회사는 투자문제에도 불구하고 연합관계를 지속할 것이다.

- Ericsson은 이탈리아의 제3의 이동사업자인 Wind와의 3개년 제휴협정을 발표했다. Ericsson은 Wind의 이동 및 고정 네트워크의 주요 공급자가 될 것이다.

네덜란드

구 분	'97	'98	'99
GDP 성장률	1.5	2.1	2.4
소비자물가지수	1.7	1.8	1.9
산업생산	2.5	2.5	2.3

1) 경제동향

1994년 이후의 완만하고 꾸준한 회복세는 크게 약화되었다. 유럽의 나머지 국가, 특히 독일과 보조를 맞추어, 성장은 1995년과 1996년초 사이에 둔화되었다. 그러나, 네덜란드의 경제는 독일이나 북유럽국가 등 나머지 유럽국가들보다 더 나은 실적을 기록하였다.

1996년 강한 주기적 회복세가 재개되어 GDP의 3.3% 성장을 기록하였다.

이러한 호조세는 1997년에도 지속되었으며, 선거 해의 세금삭감 예산에 의해 내수수요가 축진됨으

로써 비슷한 성장률이 1998년에도 예상된다. 아시아 위기의 여파로 1999년은 성장세의 완화가 전망된다.

2) 산업전망

네덜란드의 경제는 개방된 것으로 상품과 서비스의 수출이 GDP의 53%를 차지하여, 국토의 작은 규모에도 불구하고 네덜란드는 세계 7위의 수출국이다.

주요 제품은 농산물에서 에너지 까지 다양하다. 산업수출은 간접제품 및 소비재에 집중되어 있고, 중·저의 기술 부문이 비교적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1997년 국외수요는 활발하였으며, 기업확신지수는 수주 예약이 늘어나고 완제품의 재고가 줄어듦에 따라 증가하고 있다.

1997년 상반기 제조생산은 4% 성장을 상회했으나, 농업과 건설부문의 부진으로 인해 1997년 산업생산은 2.9% 성장에 머물렀다.

3) 전자산업 전망

1994년과 1995년 강한 성장세를 기록한 후, 1996년의 전자생산은 2.9% 감소하였다(인플레를 배제하면 -4.4%). 1997년 생산은 회복되어 7.5% 성장을 이룩하였다.

이러한 성장세는 수동부품과 무선통신의 강세 및 사진복사기 생산의 80% 증가에 기인하는 것이다. 그러나 가전제품은 1994년이

래 25% 감소하여 지속적인 하락을 기록하였다.

전체 전자산업 생산의 28%를 차지하는 가장 큰 부문인 EDP는 1995년 빠른 성장을 시현하였으나 1996년과 1997년 약간 감소하였다.

네덜란드는 대부분 재수출로 주요한 화물창고 역할을 하고 있으며, 1997년 Eurostat 통계에 의하면 이러한 역할이 증대되고 있다. 1996년 수입은 31% 증가한 623억 길더(Guilder)였으며 수출도 31% 증가한 549억 길더를 기록하였다. 그러나 1997년 생산은 겨우 208억 길더를, 시장은 281억 길더로 추정되었다.

전자산업은 주로 Philips 그룹에 집중되어 있다. 1993년 430여 개의 전자전기회사가 10만 명을 고용하고 있었는데, 이중 Philips가 그 절반을 고용하고 있다.

Philips의 사업부문은 대부분의 전자제품을 망라하고 있으나 유럽 유수의 반도체 및 가전제품 공급자로도 알려져 있다.

가전기는 현재 네덜란드 전자산업의 매우 적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비록 많은 수량이 계속하여 네덜란드를 경유하지만 반도체 생산은 주로 국외에서 이루어진다.

네덜란드 정부는 항상 자국의 전자산업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해 왔다. 그러나 최근 몇 년간 정부 보조는 감소되고 있고, 연구개발노력이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행해지고 있으며 연구기관과

업계간의 정보교류가 증대되고 있다.

4) 업계동향 :

- Philips Electronics NV와 Lucent Technologies는 아날로그 및 디지털 휴대폰 및 휴대기뿐만 아니라 유/무선 전화기와 전화응답기의 세계 제일의 회사를 만들기 위해 Philips Consumer Communications (PCC)를 설립하였다.
- Philips는 1998년 1월 1일부로 자사의 Sound Vision, Business Electronics 및 Industrial Electronics 사업부문의 기업활동을 재편성했다.
- Philips는 자사의 Philips Car Systems 사업부문을 독일의 Mannesmann VDO에 매각했다.
- Philips는 10개의 가동 공장을 런던의 Advent International이 주도하는 개인투자가 그룹에 매각하였다. 이 공장들은 Philips Industrial Electronics 매출의 약 15%를 차지한다. 이 매각에는 Eindhoven에 위치한 Philips Industrial Automation Systems Electronics와 Almelo의 PBF가 포함되었다.
- 시청각 장애자의 삶의 질 향상에 초점을 맞추는 Philips 사업부문은 Philips Hearing Technologies BV라 불리는 독립 기업으로 편성되고 있다.
- 네덜란드의 산업투자그룹인

Begemann은 Tulip Computer의 인수 계획을 발표했는데, 1998년 4월 소유권이 효력을 발생했다.

성장함에 따라 다시 발생하였다. 1998년 생산성장률은 부진세를 보였으나, 호조를 나타낸 산업은 통신제품, 금속제품, 자동차 등이다.

스웨덴

구 분	'97	'98	'99
GDP 성장률	1.8	2.9	2.6
소비자물가지수	0.5	0.6	1.2
산업생산	7.4	5.3	4.3

1) 경제동향

스웨덴의 경제는 1997년 수출이 호조를 보임에 따라 회복되고 있다. 1997년 4/4분기까지의 실질 GDP 성장률은 전년대비 3.3% 증가를 기록했다.

낮은 인플레이션, 현재의 재정흑자 및 재정균형의 개선 등으로 경제 성장의 전망이 매우 밝다.

현재 경제회복은 수출보다는 내수수요에 더욱 의존하며, 실질 가치분소득의 감소를 유도한 3년간의 규제적 예산정책에 이어 가계 지출은 더 건전한 기반 위에 있다.

2) 산업전망

기업투자는 근년에 크게 회복되었으나, 1997년 제조투자는 이전의 가동률의 저하로 인해 7% 하락하였다.

1997년 생산능력 부족현상은 산업생산이 생산성 증가로 인해 7%

3) 전자산업 전망

스웨덴의 전자산업은 무선통신의 생산이 주도하고 있는데 1997년 전체 전자생산의 45%를 차지하였다. 이러한 무선통신 생산은 전체 전자생산의 고성장을 주도하고 있다.

1997년 전체 전자생산은 무선통신이 62% 증가함에 따라 33% 성장하였다. 1996년 무선통신기기 생산성장률은 29%로 전체 전자산업이 11% 성장을 가능케 했다. 1993년과 1997년간 무선통신 생산은 330% 증가하였고 전체 전자산업은 110% 성장하였다.

통신기기의 생산도 매우 중요하여 1997년 전체 전자생산의 24%를 차지하였다. 1997년 성장률은 17%였으나 전년은 겨우 2% 성장에 머물렀다.

기타 주요 부문은 제어자동화 부문으로 전체 전자산업의 11%를 차지한다. 나머지는 부품이 14%, 컴퓨터기가 2%를 차지한다.

가전제품은 아주 미미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스웨덴의 전자산업은 몇몇 토착화된 다국적기업이 주도하고 있다. 스웨덴의 가장 큰 기업 중 둘은 전자관련 회사이다.

즉, Asea와 스위스 그룹인 Brown Boveri를 통합하여 설립



한 Asea Brown Boveri 및 L M Ericsson이며, 반면 기타 나머지 주요 생산공장은 Philips, IBM, Nokia (Luxor), Siemens, CGE (Standard Radio und Telefon) 등 외국기업의 자회사들이 소유하고 있다.

중소기업이 전체 전자업체의 80%이나 전체전자 매출의 10% 만을 차지하며, 이들 업체들은 고임금, 고이자 및 숙련공 부족 등 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

전체 전자업체 수의 나머지 20%는 전체 전자매출의 90%를 차지하며 지속적인 성장을 향유할 것으로 기대된다. 생산은 스톡홀름과 중부에서 남동부 지역에 집중되어 있다.

4) 업계 동향

- Nokia Telecommunications는

덴마크 코펜하겐과 스웨덴의 스톡홀름에 R&D 센터를 건립하고 있다. 스톡홀름 센터는 셀룰라 네트워크의 기지국 시스템에 집중할 것이다.

- Philips Industrial Electronics 는 10개의 기동 공장을 런던의 Advent International이 주도하는 개인투자가 그룹에 매각하였다. 이 매각에는 스웨덴의 Kista에 위치한 Philips Kistaindustrier AB가 포함되었다.
- 1997년말 Ericsson은 수익성 개선, 비용절감, 납품시간 단축 등을 위해 강도 높은 구조조정 계획을 발표했다. 이 계획의 일부로써, 주로 1998년 동안 1만 명의 인력이 추가적으로 감축될 예정이다.

- 스웨덴 Norrkoping에 위치한 Ericsson의 PCB 생산공장은

미국의 Viasystems Group에 인수되었다.

- Ericsson은 Fihem (MET SA의 자주회사)의 나머지 지분 50%를 매입하는데 합의하였다. MET SA는 통신기초장비 및 서비스를 주로 프랑스 사업자에 공급한다.
- Nokia는 스웨덴 Motala에 위치한 자사의 잔여 멀티미디어 네트워크 단말기 생산공장을 미국의 SCI에 아웃소싱하는 협정을 체결했다. 약 450명이 SCI에 고용되며 관련 자산을 구매할 예정이다. 반면, 약 170명의 직원들이 스웨덴에 위치한 Nokia Multimedia Network Terminals의 R&D, 제품마케팅, 영업 및 총무 등을 지속적으로 담당할 것이다.

<Yearbook of world Electronics Data 1999 참조>

서유럽 각국의 전자산업 생산

(단위:백만불)

국가명	연도	정보기기	사무기기	계측 및 제어기기	의료 및 산업전자	정보통신 기기	가정용기 소계	전자부품 소계	전자산업계
프랑스	98년	7,587	515	2,831	996	15,326	2,035	6,835	36,386
	99년	7,891	510	2,916	1,032	15,689	2,103	7,243	37,386
독일	98년	8,844	904	10,410	3,016	12,220	2,149	11,238	48,781
	99년	9,197	895	10,618	3,106	12,793	2,074	11,651	50,335
아일랜드	98년	8,667	33	287	3,106	1,089	49	1,723	12,130
	99년	9,360	33	295	283	1,137	51	1,868	13,054
이탈리아	98년	5,750	284	2,952	311	5,703	621	3,966	20,118
	99년	5,865	287	2,982	841	5,800	606	4,110	20,522
네덜란드	98년	3,573	979	1,710	8711,086	1,463	214	1,953	10,979
	99년	3,681	998	1,762	1,150	1,482	207	2,009	11,287
스페인	98년	1,690	74	266	196	3,053	1,370	1,059	7,707
	99년	1,825	75	277	201	3,160	1,451	1,137	8,127
스웨덴	98년	228	16	1,190	193	8,636	8	1,316	11,648
	99년	235	16	1,226	192	9,197	8	1,316	12,191
스위스	98년	717	81	2,152	565	816	2,876	1,222	8,430
	99년	1,732	80	2,217	584	832	2,962	1,259	8,665
영국	98년	15,398	747	5,052	1,346	10,895	2,929	7,553	43,920
	99년	15,552	725	4,850	1,333	10,803	2,931	7,692	43,985

서유럽 각국의 전자산업 시장

(단위:백만불)

국가명	연도	정보기기	사무기기	계측 및 제어기기	의료 및 산업전자	정보통신 기기	가정용기 소계	전자부품 소계	전자산업계
프랑스	98년	10,429	664	2,992	1,286	10,648	3,063	8,100	37,183
	99년	10,741	671	3,052	1,341	10,794	3,142	8,481	38,222
독일	98년	17,229	1,175	6,942	2,108	7,877	5,011	12,736	53,079
	99년	17,918	1,187	7,011	2,185	8,025	5,136	13,285	54,747
아일랜드	98년	2,067	66	329	155	476	182	3,217	6,492
	99년	2,149	68	339	163	487	189	3,534	9,928
이탈리아	98년	8,916	425	3,593	909	6,982	2,419	5,694	28,936
	99년	9,273	429	3,664	943	7,156	2,530	5,919	29,914
네덜란드	98년	6,113	375	1,736	724	1,946	1,329	2,684	14,906
	99년	6,357	382	1,771	751	1,962	1,363	2,818	15,404
스페인	98년	3,864	199	714	402	4,218	1,757	2,324	12,719
	99년	4,174	203	735	423	3,523	1,855	2,464	13,376
스웨덴	98년	2,865	110	1,134	330	1,298	487	2,623	9,847
	99년	2,923	112	1,168	341	2,310	504	2,835	10,193
스위스	98년	3,427	280	1,203	336	1,421	681	1,252	8,603
	99년	3,564	277	1,231	347	1,466	703	1,316	8,904
영국	98년	17,581	980	4,197	1,310	9,627	3,568	11,667	48,931
	99년	17,229	961	4,071	1,311	9,408	3,497	11,842	48,318

<'98, '99년 각 실적은 예상치임>

서유럽 각국의 수입 실적(1997)

(단위:백만불)

국가명	정보기기	사무기기	계측 및 제어기기	의료 및 산업전자	정보통신 기기	가정용	부 품			합 계
							능동부품	수동부품	기 타	
오스트리아	1,766	105	559	161	622	916	720	689	513	6,051
벨지움	3,442	185	723	258	1,150	1,515	1,380	607	766	10,026
덴마크	2,047	98	290	153	919	566	396	271	479	5,219
필란드	1,365	71	295	160	546	271	1,264	535	201	4,706
프랑스	11,957	605	2,291	860	3,869	2,994	5,053	1,803	2,281	31,713
독일	18,449	825	3,247	1,818	4,197	4,854	8,668	3,384	2,883	48,327
그리스	349	40	97	69	356	284	46	43	73	1,359
아일랜드	5,241	35	233	76	503	180	2,411	624	432	9,735
이탈리아	6,338	329	1,996	533	3,328	2,236	3,180	1,461	843	20,244
네덜란드	18,569	1,478	1,202	636	1,934	2,274	3,957	991	903	31,942
노르웨이	1,563	86	243	114	1,101	302	197	147	99	3,453
포르투갈	716	62	189	94	483	381	236	290	238	2,691
스페인	3,128	185	848	261	1,377	1,550	906	588	668	9,511
스웨덴	3,091	113	696	320	1,361	667	1,485	888	347	8,968
스위스	3,348	217	777	237	1,266	726	668	556	200	7,992
영국	19,951	561	2,657	689	8,092	3,320	8,077	2,902	2,467	48,715
합 계	101,318	4,995	16,344	6,440	30,703	23,037	38,642	15,779	13,393	250,652

서유럽 각국가의 수출 실적(1997)

(단위:백만불)

국가명	정보기기	사무기기	계측 및 제어기기	의료 및 산업전자	정보통신 기기	가정용	부 품			합 계
							능동부품	수동부품	기 타	
오스트리아	605	44	496	127	537	983	703	753	465	4,713
벨지움	2,346	123	543	205	1,037	1,717	865	657	686	8,810
덴마크	874	23	550	414	840	447	173	220	594	4,135
필란드	1,119	12	365	317	4,125	226	138	291	241	6,834
프랑스	9,251	475	2,079	594	8,137	1,933	4,466	1,665	1,756	30,357
독일	10,463	575	6,549	2,691	8,075	2,331	7,084	3,679	2,401	43,846
그리스	30	0	9	3	94	11	5	12	2	166
아일랜드	11,152	5	192	171	1,059	53	1,103	330	433	14,498
이탈리아	3,483	203	1,403	485	2,153	590	1,547	1,192	833	11,890
네덜란드	16,183	2,070	1,161	977	1,500	1,211	3,081	1,173	797	28,153
노르웨이	385	2	254	59	626	27	13	17	50	1,433
포르투갈	72	3	119	6	43	556	199	312	135	1,446
스페인	1,151	62	418	78	902	1,157	191	433	281	4,674
스웨덴	704	21	750	204	6,845	210	524	525	615	10,397
스위스	781	14	1,672	453	723	2,810	415	879	65	7,812
영국	18,292	352	3,54	4756	9,294	2,875	4,730	2,182	2,113	44,138
합 계	76,890	3,986	20,104	7,542	45,989	17,137	25,237	14,321	11,467	222,673